

WTO 농업분야 대응 현황

- (동향) 제12차 각료회의(MC12)는 '21.11.30.~12.3. 제네바 개최 예정
 - 제11차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된 후, 제12차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 주제별·그룹별 논의를 진행 중
 - 사무총장은 MC12에서 합의가능한 의제를 7월까지 미리 도출하여 12월에 이를 인준하는 방식을 제안하나, 논의진전은 미미한 상황
 - 다만, 백신 지재권 유예, 수산보조금, 전자상거래, 무역과 환경 등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
- (농업부문) 협상 우선순위에 대한 회원국 간 기존의 갈등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회원국은 아래와 같은 입장('21.6.21., 농업협상그룹회의)
 - (미국) 구체적인 제안없이 분석 문건(각국 관세운영·통보현황 등)만 제출하며, MC12의 현실적인 성과는 투명성만 가능함을 언급
 - (EU) 국내보조·시장접근 등 농업협상 전반의 투명성 개선이 중요
 - (수출국)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국내보조 상한설정·감축 주장
 - (수입국) 국별 상황에 따른 비교역적 관심(식량안보, 환경, 농촌발전)을 고려하여 국내보조 감축을 반대, 투명성 강화가 우선 과제
 - (개도국) 선진국의 기존 혜택(감축대상보조) 철폐가 논의의 선결조건
- (대응방안) 각종 회의 참석을 통해 전반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
 - 투명성* 측면에서 타결 가능성이 있는 쟁점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
 - * 통보, 무역정책검토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, 통보 적시성·정확성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이 해당
 - MC12 직전 3~4개월의 상황에서 논의 급진전 가능성에 대비하여, 유사입장국(G10 등)과의 공조를 지속 강화